

제주도 칠머리당 영등굿 고찰^{***}

박성석* · 조구호**

《 차례 》

- | | |
|------------------|-----------|
| 1. 들머리 | 4. 구조와 특징 |
| 2. 칠머리당의 신격과 영등굿 | 5. 마무리 |
| 3. 굿의 절차와 내용 | |

<요약문>

칠머리당의 영등굿은 환영제와 송별제가 있는 이원적 구조로 되어 있다. 영등환영제는 영등신을 청하여 맞이하고 대접하는 의례인데, 중간에 수산협동조합에서 주관하는 풍어제가 행해졌다. 그것은 무속의례가 민중들의 삶과 유리되어 있지 않고 밀착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제주도 무속의례의 기본형식이 새로운 양상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송별제는 큰 제차(본향뚝, 용왕맞이 등) 안에 많은 작은 제차가 포함된 이중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의 영등굿에서 볼 수 없는 재물을 관장하는 도깨비신을 모시는 영감놀이가 제차의 한 부분으로 삽입되어 있다.

* 경상대학교

** 경상대학교

*** 이 논문은 2003년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다.
(KRF-2002-072-AM2017)

이것은 신앙민들의 소망인 구복제액(求福除厄)을 거듭 반복하여 기원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주제어 : 영등굿, 들머리당, 환영제, 송별제, 이연적 구조

1. 들머리

무속의례의 궁극적 목적은 구복제액(求福除厄)에 있다. 현실의 삶에서 겪는 크고 작은 고난을 타파·예방하고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무속의례는 각 지역사회가 처한 환경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갖는다. 각 지역의 지리적 환경의 차이에 따라 신앙대상이나 신심의 정도가 다르고,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신앙행위와 관련된 명칭이나 절차도 다르게 나타난다. 해안지역에서는 어업과 관련된 풍어제나 용왕제가 성행하고, 내륙지역에서는 산신제나 서낭제가 성행한다. 그리고 무속신앙의 사제에 대한 명칭도 지역에 따라 무당, 단골, 심방 등으로 칭해진다.¹⁾ 따라서 무속의례에 대한 연구는 그것이 연행되는 현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무속의례가 연행되는 구체적인 시공간에서 그것이 갖는 의미를 찾아야 할 것이다.

제주도 영등굿은 그 동안 적지 않은 연구²⁾가 이루어졌다. 그 동안의 연구 자료에서 영등굿의 진행 과정과 내용 등이 상당 부분 규명되었다. 그렇지만 아직도 영등굿의 구조나 특징 등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그것은 비단 영등

1) 경상도 지역에서는 무속신앙의 사제를 무당, 전라도 지역에서는 무당 또는 단골, 제주도에서는 심방이라고 칭한다.

2) 현용준, 『제주도 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제주도 무속과 그주변』, 집문당, 2002.

장주근·이보형, 『제주도 영등굿』, 열화당, 1983.

문무병, 「제주도 당신앙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93.

곳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고, 많은 무속의례 연구에서 드러나는 점이다. 이러한 점들은 그동안 무속의례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 특정지역의 문화적 특징을 고찰하는 자료조사 중심이었기 때문이라 하겠다³⁾. 무속의례에 대한 연구가 특정지역의 문화적 특징을 고찰하는 단계에서 한 걸음 나아가, 문화적 보편성과 특징을 규명하는 거시적 차원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과 상호 비교·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각각의 무속제의 구조나 특징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정지역의 무속의례의 구조나 특징이 규명되어야 이를 바탕으로 다른 지역의 무속의례와 상호 비교·검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여기서는 중요무형문화재 71호로 지정된 제주도의 칠머리당 ‘영등굿’⁴⁾의 연행과정을 통하여 그것이 지닌 구조와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칠머리당의 신격과 영등굿

칠머리당에서 모시는 신은 모두 여섯이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당(堂)에서는 당신만을 모시고 있는데, 칠머리당에서는 모두 6명의 신격을 모시고 있다. ‘도원수지방감찰관(都元帥地方監察官)과 그 부인인 ‘용왕해신부인(龍王海神夫人)’, ‘영등대왕’ [燃燈大王]과 ‘선왕대신(船王大神)’, ‘남당하르방’과 ‘남당할망’이다. 이들 신들이 맡고 있는 직능을 보면, ‘도원수지방감찰관은 칠머리당의 당신(堂神)으로 마을 전체의 땅과 주민의 생사·호적 등 생활 전반을 관장하고, 용왕해신부인은 주신인 도원수감찰지방관의 부인으로 어부와 해녀의 생업을 관장한다. 영등신은 어부나 해녀의 해상 안전과 생업의 풍요를 관장하고, 선왕대신은 어로작업을 하는 어선을 관장하는 신이다⁵⁾. 남당하르바님과

3) 대표적인 예로 문화재관리국에서 실시한 <중요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를 들 수 있겠다.

4) 칠머리당굿을 주관하는 심방(수심방 김윤수)들은 칠머리당의 당굿인 영등굿을 ‘영등제’라 했다. 여기서는 무속의례의 일반적인 용어인 ‘굿’을 쓰기로 한다.

남당할마님 부부신은 본래 제주도 일도동 '막은골'에 있던 남당의 신이었는데, 이 당이 시가지가 개발되면서 헐리게 되어 칠머리당으로 옮겨와 모시게 되었다. 이렇게 칠머리당에서는 모두 6명의 신을 모시고 있다.

그런데 칠머리당에서 해마다 당굿을 하는데, 그것이 분향당신을 위한 당굿이 아니고 영등신을 위한 영등굿이다. 음력 2월 1일에는 영등신을 맞이하는 영등환영제를 하고, 음력 2월 14일에는 영등신을 보내는 영등송별제를 한다⁶⁾. 칠머리당의 당신이 도원수지방감찰관이므로 칠머리당의 당굿은 의당 분향당신을 위한 굿이 되어야 할 것인데, 영등신을 위한 영등굿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영등굿의 제차 중에 분향당신을 위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굿의 대부분이 영등신을 위한 것이다. 이것은 칠머리당의 지역적 특성과 영등신의 성격에서 비롯되었다고 하겠다.

칠머리당이 자리하고 있는 건입동(健入洞)은 제주시를 관통하여 흘러내리는 산지천이 바다와 맞닿아 있는 포구였다. 어선들의 출입이 용이한 포구는 어업이 발달할 수 있었고, 그와 함께 해녀들의 어로 작업과 어선을 이용한 어업은 더욱 번성하게 되었다. 어업이 번성해짐에 따라 바다와 어업의 풍요를 관장하는 신격에 대한 경외와 숭배가 행해졌는데, 그 신이 영등신이었다. 영등신이 제주도에서 해녀들의 어로 작업과 어부들의 어업을 관장하는 신으로 숭배되어 온 것은 『동국여지승람』⁷⁾에서 알 수 있듯이 오래 전부터이고, 아직도 제주도의 많은 지역에서 영등신을 숭배하고 있다. 영등신의 성격에 대해

5) 선왕대왕이 칠머리당의 신격으로 좌정한 내력은 분명하지 않다. 어로 작업을 하는 어선이 증가함에 따라 선주들이 뱃고사를 지내면서, 어선을 보호해주는 존재를 신격화한 것이라 한다.

6) 영등신을 맞이하는 굿을 '영등맞이'나 '영등 맞이굿' 대신 '영등환영제'라고 했다. 그리고 영등신을 보내는 굿을 '영등굿' 또는 '영등 치송굿'라고도 한다고 했는데, 현지에서는 '영등송별대제'라 했다. 여기서도 현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로 '영등환영제', '영등송별제'라고 한다.

7)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三十八, 「濟州牧 風俗條」, 又於二月朔日 於歸德金寧等地 立木竿十二 迎神祭之 居涯月者 得차 形如馬頭者 飾以彩帛 作躍馬戲以娛神 至望日乃罷 謂之燃燈 是月禁乘船

서는 학자나 심방들마다 견해가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바다와 관련이 깊은 해양신이고, 소라·전복·미역 등 해녀들이 채취하는 해산물을 풍부하게 해주는 증식신(增殖神)⁸⁾이라는 것은 공통적이다. 특히 해녀들이 채취하는 해산물을 풍부하게 해주는 증식신이라는 것은 제주도 전역에서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영등신의 성격이다⁸⁾. 건입동의 칠머리당에서도 제주도의 여느 지역과 마찬가지로 바다와 어업을 관장하는 신으로 영등신을 모시어 왔고, 오늘날에도 영등신을 숭배하는 연등굿을 하고 있다.

3. 굿의 절차와 내용

칠머리당의 영등굿은 매년 두 차례 행한다. 영등신이 들어오는 음력 2월 1일에 영등환영제를 하고, 영등신이 제주를 떠나기 전날인 음력 2월 14일에 영등송별제를 한다⁹⁾. 그런데 지난해부터 칠머리당의 영등환영제는 제주시 수산업협동조합의 풍어제와 함께 행해졌다.¹⁰⁾ 영등굿의 구조와 특징을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영등환영제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1) 연등환영제

영등환영제의 진행순서는 초감제 - 풍어제 - 새도림 - 도래둘러땀 - 추물 공연 - 나까시리놀림 - 지장본풀이 - 석살림굿 - 도진 - 뒷풀이 순서로 진행되었다. 여기서 영등환영제의 모습이 다소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수산

8) 지역에 따라 영등굿의 명칭이 ‘잠수굿’이라고도 하는데 그 내용은 모두 어부나 해녀의 어로작업의 풍요를 기원하는 것으로 같다.

9) 영등송별제는 거행하는 일시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대개 13 -15 일 사이에 행해지고, 굿을 하는 기간도 1 -3일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10) 제주시 수산업협동조합에서 해마다 음력 1월 17일에 풍어제를 지내는데, 풍어제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해마다 줄어들어, 주민들의 호응을 유도하기 위해서 영등제와 함께 하기를 요청했다고 했다.

협동조합의 요청에 의해 풍어제가 환영제 중간에 행해졌고, 어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풍물패의 풍물놀이가 환영제 마지막에 행해졌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무속의례가 상황에 따라 변모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영등환영제의 제차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초감제

‘초감제’는 신을 청해들이는 제차이다. 초감제는 다음과 같이 다섯 거리로 구분되어 진행되었다.

① 배포도업침 : 천지혼함으로부터 천지개벽, 일월성신의 발생, 국토의 형성, 인물의 출생 등을 비롯한 지리·역사적 사건들을 차례로 노래하는 것이다. 자연물의 발생을 노래하는 것을 ‘배포친다’고 하고, 인물이나 자연환경의 내력을 노래하는 것을 ‘도업친다’고 하는데, 이것은 굿하는 장소를 신들에게 아뢰기 위한 것이다.

② 날과 국 섬김 : ‘배포도업침’에서 아뢴 자연환경과 인물의 해설이 점점 좁혀져 굿하는 장소, 곧 제주도 어느 면, 어느 마을, 어디라는 것과 굿하는 날 짜를 노래한다.

③ 연유 다텔 : 굿하는 날짜, 장소 설명에 이어서 굿하는 사유를 노래하고 신들의 강림을 청하는 것이다.

④ 군문 열림 : 신들이 하강하는 문을 여는 것이다.

⑤ 신청례 : 신들이 하강하는 길의 부정을 제거하고 신들을 청하는 것이다. 이상으로 초감제¹¹⁾가 끝이 난다. 초감제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 때문에 굿을 하여 신들을 청한다’는 것을 아뢰고, 신궁(神宮)의 문을 열고, 신이 오시는 길의 부정을 제거하여, 모든 신을 제상에 모셔 앉히는 청신의식(請神儀式)이다.

(2) 풍어제 : 수산협동조합 관계자들이 풍어를 기원하는 제사를 지냈다.

11) 초감제는 일반적으로 배포도업 - 날과 국 섬김 - 열명 올림 - 연유 다텔 - 군문 열림 - 분부 사림 - 새도림 - 신청례 - 정대우 - 추물공연 순으로 진행되는데, 굿하는 상황에 따라 제차가 생략되기도 한다고 했다.

(3) 새도림 : 신궁의 문을 열었으니 신들이 오시는 길의 모든 부정을 제거하는 제차이다.

(4) 도래들러멤 : 악기(樂器)의 신을 청하여 대접하는 제차이다¹²⁾.

(5) 추물공연 : 신을 청하여 좌정시켰으니, 이제는 차려 놓은 제물을 잡수시도록 권하고 원하는 바를 간절히 기원하는 제차이다.

(6) 나까시리¹³⁾ 놀림 : 여러 신들에게 떡을 올리고 잡수시기를 청하는 제차이다.

(7) 지장본풀이: 지장신의 내력을 풀이하는 것으로, 사주팔자가 나쁜 사람의 본을 풀어주고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을 대접하고 위로하는 제차이다.

(8) 석살림 : 음식을 대접했으니, 이번에는 신을 즐겁게 하는 제차이다

(9) 도진 : 굿이 끝났으니 모든 신들을 돌려보내는 제차이다.

(10) 풍물놀이 : 풍물패의 풍물놀이가 어민들과 어우러져 행해졌다.

이상과 같이 영등환영제가 거행되었다.

2) 영등송별제

영등송별제는 초감제 - 분향뚝 - 요왕맞이 - 씨드림 - 마을 도액막음 - 영감놀이 - 도진 순서로 진행되었다

(1) 초감제

초감제는 배포도엮 - 날과 국 섬김 - 열명 올림 - 연유 닦음 - 군문열림 -

12) 이 거리는 제주도 굿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심방(김윤수)의 말에 의하면, '무당의 의형제가 악기의 신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어 악기의 신의 대접한다는 것이다.

13) '나까'는 낮에 신에게 시루떡을 바치는 것이라는 의미라 했다.

분부 사뵐 - 새도림 - 신청쾌 순으로 진행되었다. 초감제의 내용은 앞의 환영제의 것과 같은데, 여기서는 분부 사뵐 - 새도림 - 신청쾌가 추가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구조와 특징에서 설명하기로 하겠다.

(2) 본향듬

본향듬은 칠머리당의 본향신인 도원수감찰지방관과 용왕해신부인을 제청(祭廳)으로 청해 들어 좌정시키고 축원하는 것이다. 이 제차는 다시 9개의 소제차로 구분되어 진행되었는데,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본향듬 - 군웅만관 - 신청쾌 - 정대우 - 도산만아 분부사뵐 - 추물공연 - 금베리잔 - 나까시리 놀림 - 지장본풀이 순이었다

- ① 본향듬 : 본향신을 청하여 대접하는 제차이다.
- ② 군웅만관 : 군웅신들을 모시고 즐겁게 대접하는 제차이다
- ③ 신청쾌 : 내용은 초감제의 것과 같다.
- ④ 정대우 : 1만 8천 여명의 신들을 제청으로 모시는 제차이다.
- ⑤ 도산만아 분부사뵐 : 마을 전체의 일년 동안 운수를 알아보기 위해 무점(巫占)을 치고, 그것을 신앙민들에 알려주는 제차이다.
- ⑥ 추물 공연 : 초감제의 내용과 같다.
- ⑦ 금베리¹⁴⁾잔 : 초감제에서 청한 신들에게 잔을 권하고 이별을 고하는 제차이다. 이 제차에서 용왕신만 남고 다른 신들은 모두 떠난다고 했다.
- ⑧ 나까시리 놀림, ⑨ 지장본풀이는 앞의 초감제나 환영제의 내용과 같다.

(3) 요왕맞이¹⁵⁾

바다를 관장하는 용왕신과 영등신을 제단으로 청하여 풍어를 기원하는 제차이다. 요왕맞이는 크게 초감제, 요왕질침, 요왕문 열림으로 구분되어 진행되었다.

- ① 초감제 : ‘초감제’의 것과 같다.

14) ‘베리’란 제주도 말로 이별을 뜻한다고 했다.

15) 칠머리당 영등굿에서는 ‘용왕’을 맞이하여 대접하는 제차를 ‘요왕맞이’라 했다.

② 요왕질침 : 용왕과 영등신이 오는 길을 치우고 정리하는 제차이다. 요왕 질침은 다시 요왕질 돌아봄 - 언월도로 베기 - 작데기로 치우기 - 은비따비로 파기 - 물베로 베기 - 삼태기로 치우기 - 밭로 고르기 - 이슬다리 놓기 - 미렛대로 고르기 - 나비다리 놓기 - 마른다리 놓기 - 요왕다리 놓기 - 차사다리 놓기 - 올구멍 매우기 순으로 진행되었다. 요왕질침의 소재차는 용왕과 영등신이 오시는 길을 치우고 정리하는 것이다.

③ 요왕문 열림 : 용왕과 영등신이 오는 문을 열어 용왕과 영등신을 맞이하는 제차이다.

(4) 씨드림

‘씨드림’은 씨를 뿌린다는 뜻이다. 곧, 파종한다는 것이다. 미역, 전복, 소라 등 해녀들이 채취하는 해산물의 씨앗을 바다에 뿌려 해산물이 많이 번식하도록 기원하는 제차이다. 씨드림은 ‘씨멩텡이 놀림’과 ‘씨점’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① 씨멩텡이 놀림 : 씨앗을 담은 용기(씨멩텡이)을 공중으로 던지고 잡는 동작을 하며, 씨를 관장하는 영등신을 즐겁게 하는 제차이다

② 씨점 : 씨앗으로 어업의 흥풍을 점을 치는 제차이다.

(5) 마을 도액막음

한해 동안 마을 전체의 액을 막고 해운을 기원하는 제차이다.

(6) 영감 16) 놀이

영감놀이는 도깨비신인 영감을 청하여 어업의 풍년을 기원하는 제차이다. 이 제차는 ‘영감청힘’ - ‘서우젓소리’ - ‘배방선 및 지드림’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16) 제주도에서 영감은, 참봉(參奉) 또는 야채 [夜叉]라고도 하는데, 도깨비신을 칭한다. 이 신은 잘 모셔 후하게 대접하면 일시에 부자가 되게 해준다고 하여, 어민들이 어선의 신인 선왕(船王)으로 모시기도 하고, 대장간의 신이나 마을의 당신으로 모시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 신을 잘 모시다가도 실수로 대접을 게을리 하면 집 네 귀에 불을 붙이는 요망스러운 짓을 하여 일시에 망하게 한다고 한다. (현용준, 「영감놀이」, 『제주도의 무속과 그 주변』, 집문당, 2002. 99쪽)

- ① 영감청함 : 영감을 청해 들이는 제차이다
- ② 서우젯소리 : 제주지역에 널리 유행되는 민요인 서우젯소리를 하며 심방과 영감이 흥겹게 논다.
- ③ 배방선 및 지드림 : 배방선은 영등신을 태워 보내는 것이고 지드림은 영감들이 바다의 용왕이나 바다에서 죽은 영혼들에게 제물을 백지에 싸 던져 대접하는 것이다.

(7) 도진

모든 신들을 돌려보내는 제차이다. 심방이 신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돌아가기를 청한다.

이상으로 영등송별제가 마무리되었다. 앞에서 서술한 영등환영제와 송별제의 내용을 제차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영등환영제

- (1) 초감제(베포도업침 - 날과 국 섬김 - 연유 닦음 - 군문 열림 - 신청괘)
- (2) 풍어제 (3) 새도림 (4) 도래둘러뻬 (5) 추물공연 (6) 나까시리 놀림
- (7) 지장본풀이 (8) 석살림 (9) 도진 (10) 풍물놀이

* 영등송별제

- (1) 초감제(베포도업침 - 날과 국 섬김 - 열명 올림 - 연유 닦음 - 군문 열림 - 분부 사뵐 - 새도림 - 신청괘)

- (2) 본향뵐(본향뵐 - 군웅만환 - 신청괘 - 정대우 - 도산받아 분부사뵐 - 추물공연 - 금베리잔 - 나까시리 놀림)

(3) 요왕맞이

- ① 초감제(베포도업침 - 날과 국 섬김 - 열명 올림 - 연유 닦음 - 군문 열림 - 분부 사뵐 - 새도림 - 신청괘)

- ② 요왕질침(요왕질 돌아뵐 - 언월도로 베기 - 작데기로 치우기 - 은비 따비로 파기 - 물메로 베기 - 삼태기로 치우기 - 발로 고르기 - 이슬다리 놓기 - 미렛대로 고르기 - 나비다리 놓기 - 마른다리 놓기 - 요왕다리 놓기 -

차사다리 놓기 - 올구멍 때우기)

③ 요왕문 열림

(4) 씨드림 (씨멩텅이 놀이 - 씨점)

(5) 마을 도액막음

(6) 영감놀이(영감청합 - 서우젯소리 - 배방선 및 지드림)

(7) 도진

4. 구조와 특징

앞에서 서술한 영등환영제와 송별제의 내용을 중심으로 칠머리당 영등굿의 구조와 특징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칠머리당의 영등굿은 영등환영제와 송별제의 이원적 구조로 되어 있다. 먼저 환영제부터 살펴보면, 영등환영제는 초감제 - 풍어제- 새도림 - 도래돌러멤 -추물공연 - 나까시리놀림 - 지장본풀이 - 석살림 - 도진- 풍물놀이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여기서 풍어제와 풍물놀이는 환영제의 제차와 무관한 별도의 것임으로 검토 대상에서 생략하고 나머지 8개의 제차를 중심으로 검토해 본다. 환영제의 8개 제차를 제주도 무속의례의 기본 형식인¹⁷⁾ 청신(請神), 향연(饗宴)·기원(祈願), 축사(逐邪), 송신(送神)의 구조로 정렬해 보면, 청신에는 초감제, 향연과 기원에는 도래돌러멤·추물공연·나까시리놀림·지장본풀이·석살림 등이 해당되고, 축사에는 새도림, 송신에는 도진이 해당된다. 그런데 영등환영제에서는 축사의 의례인 새도림이 먼저 진행되고, 그 다음에 향연과 기원의 의례가 진행되어 제주도 무속의례의 기본형식과는 다소의 차이가 있다. 청신의례인 초감제가 행해지고 난 후, 축사의례를 행하는 것은 내륙지역의 대부분의 굿에서 신청올림을 하고 난 후, 일월성신맞이(경우에 따라서는 칠성맞이 또는 상산부군맞이)를

17) 현용준, 「제주도 무당굿 개관」,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침문당, 2002), 40-41쪽. 이 논문은 1966년 『문화재』 제2호(문화재관리국)에 수록되었던 것이다.

하고, 그리고 초부정, 영정물림을 하는 것¹⁸⁾과 유사하다고 하겠다. 이렇게 축사의례가 먼저 행해지고 기원의례가 행해지는 것은, 굿이 거행되는 시공간적 상황에 따라 그 절차와 내용이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대부분의 굿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환영제에서 축사의례인 새도림이 향연·기원의례보다 먼저 행해진 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환영제가 진행되는 중간에 풍어제라는 별개의 의례가 삽입되어 거행되었기 때문이다. 영등환영제 본래의 절차와 무관한 풍어제가 삽입되어 환영제가 중간에 잠시 중단되었다가 다시 진행되기 때문에, 그동안의 부정을 제거하는 의례인 새도림을 먼저 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무속의례의 연행 현장에서 빈번하게 볼 수 있는 것이다. 무속의례가 시공간적인 상황에 따라 절차와 내용이 다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은 민중들의 삶과 유리되어 있지 않고 밀착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제주도 무속의례의 기본형식이 새로운 양상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축사의례인 새도림과 향연·기원의 의례인 추물공연과 석살림은 제주도 무당굿에서도 독립적으로 행해지기도 하고, 큰굿¹⁹⁾이나 영등굿²⁰⁾의 초감제 안에 작은 제차로 행해지기도 하는 것인데 영등환영제에서는 독립된 절차로 진행되었다. 이것은 영등환영제의 성격이 영등신을 맞이하는 의례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싶다. 곧, 영등신을 청하는 청신의식인 초감제가 영등환영제의 중심제차라는 것이다.

18) 조흥윤(『한국의 샤머니즘』, 서울대출판부, 2002)은 우리국의 대표적인 형태를 <천신굿>과 <새남굿>으로 분류했는데, 천신굿의 한 유형인 <철무리굿>에서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다. <철무리굿>의 내용과 순서는 김금화의 무가집(『김금화의 무가집』, 문음사, 1995) 참조.

19) 큰굿이란 모든 무구를 사용하고 모든 필요한 의례를 연속적으로 하는 일종의 종합의례로 심방이 5인 이상 동원된다.

20) 여기서 말하는 영등굿은 영등송별제이다. 현용준, 장주근이 조사 정리한 영등굿은 모두 영등송별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영등굿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두 영등신을 보내는 송별굿이다.

초감제에는 베포도업, 날과 국 섬김, 연유담음, 군문열림, 신청께 등의 소제차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제차는 앞서도 언급되었듯이 영등환영제를 거행하는 경위를 아뢰고 신을 청하여 좌정시키는 의례이다. 그렇기 때문에 송별제의 요왕맞이나 본향똥 등의 초감제에서도 빠질 수 없는 제차인 것이다. 초감제가 영등환영제의 중심제차라는 것은 영등환영제의 각 제차의 기능에서도 알 수 있다. 영등환영제의 제차는 특별한 신을 모시는 독립적인 제차²¹⁾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청신의례인 초감제를 하고는 제주도의 큰굿이나 영등송별제에서 초감제나 요왕맞이 등의 소제차로 행해지던 새도림, 추물공연, 나까시리놀림, 석살림 등이 독립적인 제차로 진행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제차들이 초감제의 소제차로 행해지지 않고 독립적으로 행해진다는 것은, 초감제에서 청한 신들을 대접하고 기원하는 의례로 각 제차가 초감제와 동등한 비중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뜻한다. 곧, 환영제는 청신의례인 초감제, 축사의례인 새도림, 향연·기원의례인 도래돌리땀·추물공연·나까시리놀림·지장본풀이·석살림, 송신의례인 도진의 순서로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지적될 수 있는 것이 송신의례인 도진이다. 환영제가 영등신을 맞이하는 곳이고 송별제가 영등신을 보내는 곳인데, 환영제에서 영등신을 보내는 도진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무속의례가 지니는 특성이 아닌가 싶다. 무속의례를 주관하는 무당이 신을 청하여 대접을 하고 신앙민들의 소망도 축원했으니, 어떻게 든지 마무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환영제에서 마지막 제차인 ‘도진은 신을 돌려보낸다는 의미보다는 환영제를 마무리한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겠다. 이제까지 서술한 바를 정리해 본다면 영등환영제는 영등신을 청하여 맞이하고 대접하는 의례라고 하겠다.

다음으로 영등송별제의 구조와 특징을 검토해 본다. 제주도 영등굿은 ‘초감제’와 ‘요왕맞이’의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²²⁾ 초감제는 청신·오신·기원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요왕맞이에서 다시 청신·오

21) 여기서 독립된 제차란 영등송별제에서 ‘본향똥’이나 ‘요왕맞이’ 등과 같이 특정 신을 모시는 제차를 말한다.

22) 현용준, 『제주도의 영등굿』, 『한국민속학』 창간호, 한국민속학회, 1969.

신·기원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이중적인 구조는 영등굿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징이다. 대부분의 굿이 청신 - 오신 - 송신의 큰 구조 안에 청신 - 오신 - 기원의 제차가 반복되는 중첩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다²³⁾. 따라서 이러한 중첩적인 구조를 검토해 봄으로써 영등송별제의 특징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칠머리당 영등송별제는 - 초감제 - 본향뚝 - 요왕맛이 - 씨드림 - 마을 도액막음 - 영감놀이 - 도진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미 송별제 7개 각각의 제차에 대한 설명에서 그 개략적인 윤곽이 드러났듯이, 초감제는 송별제 전체의 청신의식이고, 본향뚝과 요왕맛이는 본향신과 영등신을 청하고 대접하는 청신의식과 향연의식이 함께 치러지는 제차이다. 그리고 씨드림은 해산물이 풍성하기를 기원하는 기원의식이고, 마을 도액막음은 축사의식과 기원의식의 함께 내포된 제차이고, 영감놀이는 향연과 기원이 함께 내포된 제차이다. 송별제가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이루는 것은 초감제, 본향뚝, 요왕맛이 등의 큰 제차에는 그 안에 작은 제차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의 굿에서 큰 제차 안에 작은 제차가 반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일까? 그것은 제주도 굿의 특징이다. 제주도의 큰굿은 종합청신의례 - 개별의례 - 종합송신의례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²⁴⁾, 칠머리당 영등송별제도 본향당신인 도원수감찰지방관에 대한 본향제와 영등신 송별제가 합쳐진 큰굿의 형식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영등송별제의 전체 구조를 큰굿의 구조로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종합청신의례(초감제) - 개별의례(본향뚝, 요왕맛이) - 종합송신의례(도진)의 구조로 정리된다. 이러한 전체의 구조 아래 영등신을 청하여 맞이하는 청신의례(요왕맛이), 대접하고 기원하는 향연·기원의례(씨드림, 마을 도액막음), 송신의례(영감놀이)가 있다. 그러면 개별의례라고 할 수 있는 '본향뚝'과 '요왕맛이'의 구조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23) 조흥윤은 '부정 -가말(청배) -진적'이 반복된다고 했는데 『한국의 샤머니즘』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15쪽, 그것은 청신 -오신 -기원의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다

24) 현용준, 앞의 논문(『제주도 무당굿 개관』), 39쪽

먼저 ‘본향뚬’부터 살펴보면, 본향뚬에는 9개의 제차가 포함되어 있다. 본향뚬 - 군웅만판 - 신칭궤 - 정대우 - 도산받아 분부사뵈 - 추물공연 - 금베리잔 - 나까시리 놀림 - 지장본풀이 등이다. 이 9개의 제차를 제주도 무속의례의 기본 형식으로 정리해 보면 청신(본향뚬, 군웅만판, 신칭궤), 향연·기원(정대우, 도산받아 분부사뵈, 추물공연, 나까시리놀림), 축사(지장본풀이), 송신(금베리잔)으로 정리된다. 이렇게 본향뚬의 소제차가 제주도 무속의 기본형식과는 잘 부합되지 않는데, 그것은 ‘금베리잔’의 특징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금베리잔’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등송별제에 청한 모든 신들에게 이별을 고하는 잔을 올리는 제차이다. 그래서 이 제차에서 용왕신을 제외한 모든 신들이 떠나고 용왕신만이 남게 된다. 용왕신을 제외한 모든 신들을 청하여, 대접하고, 보내는 의례가 ‘금베리잔’까지이고, ‘나까시리놀림’과 ‘지장본풀이’는 용왕신을 모시고 행하는 의례이다. 그러니까 본향뚬은 본향당신인 도원수감찰지방관을 비롯한 1만 8천신을 청하여 대접하고 보내는 의례이면서 용왕신을 대접하는 이중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이러한 이중적 의미를 지니는 것은 ‘본향뚬’ 뿐만 아니라, ‘용왕맞이’에서도 드러난다.

용왕맞이는 초감제, 요왕질침, 용왕문 열림의 3개의 제차 안에 다시 소제차가 있는 2중의 구조로 되어있다. 용왕맞이에서 초감제가 독립된 제차로 진행되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용왕맞이가 영등송별제의 한 부분이면서 개별의례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용왕과 영등신을 청하는 청신의례로서 초감제를 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초감제의 소제차에는 신들이 오는 문을 여는 의례인 ‘군문열림’, 신을 좌정시키는 ‘정대우’, 신을 대접하는 ‘추물공연’ 등이 있다. 여기서 초감제의 의미가 이중적임이 드러난다. 초감제가 용왕과 영등신을 청하는 의례로서의 의미와 모든 신들을 청하여 대접하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무속의례의 개별 제차가 독립적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중첩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특징이기도 하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볼 점은 영등송별제는 영등신을 대접하여 보내는 곳인데, 영등신을 청하고 맞이하는 제차의 명칭은 영등맞이가 아니라 용왕맞이라는 것이다. 용왕맞이의 소제차의 명칭도 요왕질침, 용왕문 열림이다. 그리

고 요왕맞이의 사설에서도 “용왕과 영등신이 오시려는데, 요왕질이 어찌 되었는지 돌아보자”고 하며, “용왕님과 영등대왕이 오실 다리를 놓자”고 한다. 이것은 영등신과 용왕이 이름만 다를 뿐 같은 신격임을 말해 주는 것이 아닌가 싶다²⁵⁾. 용왕과 영등신의 직능이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는 점도 이런 의문을 낳게 하는 것이다.

본향툼과 요왕맞이가 개별의례이면서 전체에 통합되는 중첩적으로 작용을 한다면, 씨드림과 마을 도액막음은 송별제의 부분의례로 작용한다. 어업의 풍요를 관장하는 영등신을 맞이하여 대접하였으니, 씨드림과 마을 도액 막음을 거행하여 해산물의 풍성과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것이다. 영감놀이는 영감놀이는 칠머리당 외의 지역에서는 잘 행해지지 않는 제차이다. 영등곳의 일반적인 제차가 초감제 -요왕맞이 -씨드림 - 자손들 산받음 - 배방선²⁶⁾인데, 칠머리당에서는 개별의례인 영감놀이가 송별제의 한 부분으로 행해지고 있다.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영감은 제주도에서 재물을 관장하는 도깨비신으로 어업의 풍요를 가져다주기도 하는 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을 청하여 재물의 증대와 어업의 풍요를 기원하는 놀이를 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신앙민들의 소망인 구복제액을 거둬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이렇게 영등송별제는 개별의례가 전체의례의 한 부분으로 작용하는 중첩구조를 지니고 있다.

5. 마무리

칠머리당의 영등곳은 환영제와 송별제가 있는 이원적 구조로 되어 있다. 영등환영제는 영등신을 청하여 맞이하고 대접하는 의례로, 청신의례인 초감

25) 유동식의 『한국무교의 역사와 구조』(연세대학교 출판부, 1997(제7판))에서 불교의 영등신앙이 재래의 용신신앙과 융합되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앞의 책, 139쪽.

26) 현용준, 앞의 책, 68쪽

제, 축사의례인 새도림, 향연·기원의례인 도래둘러땀·추물공연·나까시리놀림·지장분풀이·석살림, 송신의례인 도진이 동등한 비중으로 진행되었다. 영등환영제에서는 축사의 의례인 새도림이 먼저 진행되고, 그 다음에 향연과 기원의 의례가 진행되어 제주도 무속의례의 기본형식과는 다소의 차이가 있었는데, 그것은 환영제가 진행되는 중간에 풍어제라는 별개의 의례가 삽입되어 거행되었기 때문에 부정을 제거하고 다시 환영제를 거행하는 의미라 하겠다. 이것은 무속의례가 민중들의 삶과 유리되어 있지 않고 밀착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제주도 무속의례의 기본형식이 새로운 양상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송별제는 본향똥, 요왕맞이 등의 제차는 그 안에 많은 소제차가 포함되어 있는 중첩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의 영등굿에서는 볼 수 없는 영감놀이가 질차의 한 부분으로 삽입되어 진행되었는데, 그것은 재물을 관장하는 도깨비신을 청하여 대접함으로써 재물의 증대와 어업의 풍요를 기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영등송별제에서 개별의례가 중첩되어 소제차가 반복되고, 다른 지역의 영등굿에서 볼 수 없는 영감놀이를 질차의 한 부분으로 삽입하여 행하는 것은 신앙민들의 소망인 구복제액을 거듭 반복하여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 참고 문헌 □

『신증동국여지승람』
 국립문화재관리국, 『한국민속종합보고서 제주도편』, 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재판)
 김금화(1995), 『김금화의 무가집』, 문음사.
 김태곤(1981), 『한국무속연구』, 집문당.
 문무병(1993), 「제주도 당신앙 연구」, 제주대대학원박사논문.
 유동식(1997), 『한국무교의 역사와 구조』, 연세대학교 출판부, 제7권.

- 장주근·이보형(1983), 『제주도 영등굿』, 열화당.
장주근(2001), 『제주도 무속과 서사 무가』, 역락.
제주도·제주전통문화연구소, 『제주도 큰굿 자료』 각, 2001.
조홍윤(2002), 『한국의 샤머니즘』, 서울대출판부.
진성기(2000), 『제주도 무가본풀이 사전』, 민속원, 초판 2쇄.
최길성(1978), 『한국무속의 연구』, 아세아문화사.
현용준(1980), 『제주도 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_____ (1992),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_____ (2002),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집문당.
_____ (2002), 『영감놀이』, 『제주도의 무속과 그 주변』, 집문당.

〈Abstract〉

A Reserch on The YOUNG -DUNG Shamanist Rites of Chil- meli- dang in JEJU

pak, sengsek(gyungsang, univesity) · jo, guho(gyungsang,univesity)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Reserch on The YOUNG -DUNG Shamanist Ritie of Chil-meli-dang in JEJU. The YOUNG -DUNG Shamanist Ritie of Chil-meli-dang consist of two organizations, reception rite and farewell rite. The reception rites is to receive God of YOUNG -DUNG, and it has been closely related to residents. The farewell rite is to send off God of YOUNG -DUNG. The farewell rite have many small rites which are repeated. The farewell rite have "The Play of Young-Gam" which has been worship as magician who control property. It symbolizes the wish of people who want to obtain riches and longevity.

Key words: YOUNG-DUNG Shamanist Ritie, Chil-meli-dang, consist of two organizations, The reception rites, The farewell rite.

이 름: 박성석

근무처: 경상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주 소: 660-701 경남 진주시 가좌동 900번지

전 화: 055-751-5835

전자우편 : ssepark@nongae.gsnu.ac.kr

이 름: 조구호

근무처: 경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주 소: 660-701 경남 진주시 가좌동 900번지

전 화: 055-751-6299

전자우편: nulchan@netian.com

논문접수: 2004년 3월 31일

심사완료: 2004년 5월 24일

게재결정: 2004년 6월 1일

K C I